

## 뉴욕 증시 기술주 약세에 하락 마감…나스닥 2.5% ↓

등록 2022.01.14 06:30:58 | 수정 2022.01.14 09:53:44

다우 지수 0.49% 하락, S&P500 1.42% 하락



[뉴욕=AP/뉴스시스]한 뉴욕 시민이 30일(현지시간) 휴대폰을 보며 뉴욕증권거래소 앞을 지나가고 있다. 2021.12.1

[서울=뉴스시스] 유자비 기자 = 13일(현지시간)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하락 마감했다.

이날 뉴욕증권거래소(NYSE)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76.7포인트(0.49%) 하락한 3만6113.62에 장을 마쳤다.

스탠더드앤드푸어스(S&P) 500 지수는 전장보다 67.32포인트(1.42%) 내린 4659.03에,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81.58포인트(2.51%) 내린 1만4806.81에 거래를 마쳤다.

기술주 반등세가 약화되면서 고전했다.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각각 2.4%, 4.2% 떨어졌고 테슬라는 6% 넘게 하락했다.

연준이 올해 금리 인상, 대차대조표 축소를 포함해 인플레이션에 적극 대처할 것이란 신호를 보내면서 기술주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.

이날 공개된 미국의 12월 생산자물가지수(PPI)가 전월 대비 0.2% 상승하며 월가 예상인 0.4%를 하회했다. 그러나 이 수치는 전년 대비 0.7% 증가해 2010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.

또 미국의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건으로 월가 예상인 20만건을 웃돌았다. 오미크론 확산과 맞물려 증가세를 보였다.

투자자들은 또 레이얼 브레이너드 미 연방준비제도(Fed·연준) 부의장 지명자의 상원 인준 청문회를 주시했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jabiu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